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김 영 연

차 례

- I. 유치원 음악교육의 성격
- II. 유치원 교육과정의 발달과 변천
- III.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 1.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 2. 유아의 음악성 발달
 - 3. 유아음악 연구
- IV. 요약 및 제언

유아교육에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제반 음악 활동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기 보다는 유아교사 주도의 노래부르기나 율동을 통한 표현활동이 강조되고 또한 다른 교육활동과의 연결과정으로 활용되어왔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초·중등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의 본질적 접근을 강조하고 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부각시키는 현 시점에서 음악교육학은 유아교육자들에게 독립적 교육영역으로서의 유아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연구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조명은 앞으로의 유아음악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 왔던 음악교육의 성격과 발달과정을 되살펴보고 둘째, 최근 20년간 발표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학의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유치원 음악교육의 성격

우리 나라에서 유아중심적 교육사상을 따르는 유아교육은 유치원 전문가 브라운리(Brownlee, 1876-1970)를 주축으로 하여 1915년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이화유치원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1910년대 중반부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유아지도자들은 놀이, 노래, 노작, 이야기 들려주기를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았는데 특히 유치원은 '유희 중심의 교육장'이란 확신을 가지고 노래와 유희를 지도해 왔다(이상금, 1987).

보육학교 학생들은 음악적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보육학교와 경성보육학교는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음악활동에 열중하였다.
(이상금, p.254)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브라운리, 밴 폴리트(Edna Vanfleet Hobbs), 하워드(Clara Howard), 서은숙, 김애마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자들과 차사백, 이영보, 이영선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자들의 음악교육 내용은 그 근본방향에서 부터 크게 달랐다. 후자가 어린이들에게 알맞는 리드미칼한 가곡에 맞추어 유아교사가 보여주는 표정과 동작을 모방하는 율동유희(dance)를 강조하였다면 전자는 음악에 맞추어 어린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놀이유희(play)을 보다 중시했다(이상금). 이렇듯 표정 율동유희 도입에 열중한 현상은 일본에 유학한 한국인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창가나 유희를 유치원의 새로운 기술로 인식하여 집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이런 양상은 일제 탄압기간동안 우리 나라 유치원 음악교육의 성격을 더욱 변질시켰다. 당시의 유아교육자들은 유아의 음악과 율동유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곧 유아기 때 부터 애국인사를 양성하는 길이란 성급한 판단을 하였고 동시에 이것은 일종의 모금수단이 되었으며 유치원 연합발표회등을 통하여 유치원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 자체가 일층 창가와 유희활동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의 우리 나라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우리말로 노래부르기가 금지되었었고 국민학교 저학년 음악시간이 사라지던 풍토에서 유치원에서나마 우리말로 된 노래를 부르며 유희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민족교육적 차원에서는 한편 다행스럽고 나름대로 교육적 의의와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유아들의 율동유희를 동원하는 빈번한 동정음악회나 연합발표회의 출현은 우리 나라 유아음악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의 성격을 본질부터 흐려놓았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이상금, 한용희, 1988). 급기야 이러한 비판적 분위

기는 과도한 창가교육이나 율동유희 중심의 교육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유치원 무용론을 대두시켜서 우리 나라 유아교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까지 작용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신체적, 심미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놀이유희(play)나 유아 스스로에 의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표현활동(creative rhythmic expression), 즉 아동중심적 음악교육 대신에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유아로 하여금 어른들의 동작과 표정을 흉내내어 성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시적 행사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일부 유아교육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음악교육이란 노래배우기나 손유희와 율동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수하게 하는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아음악교육의 기본목표가 연령별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유아들로 하여금 올바른 음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개인이 타고났거나, 혹은 훈련에 의해 형성된 음악성을 바탕으로 교사가 유도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음악적능력을 보다 확대시켜줌으로써 유아 스스로가 미에 대한 감각을 넓히고 그러한 훈련된 감각을 그들의 노래 속에, 악기연주 속에, 신체표현 속에, 기타 다른 감상활동 속에 재구성,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노래지도나 율동은 분명히 이런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유아음악교육방법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에 이견이 없다.

II. 유치원 교육과정의 발달과 변천

1969년에 발표된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자연생활, 언어생활, 예능생활의 5개 생활 영역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고 특별히 예능생활은 심미적 태도의 육성과 창조적 표현 능력의 계발을 주된 목표로 삼았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유아교육자간에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79년의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을 주요 목표로 삼고 유아의 발달을 인지발달, 언어발달, 신체-건강발달, 사회-정서발달 영역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능력과 표현습관의 형성 및 태도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시 1981년의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전의 4개 영역은 사회, 정서발달이 분리된 인지, 언어, 신체, 사회, 정서발달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정서발달을 위한 건전한 심신의 육성을 중요시 하였다. 1987년의 제4차 교육과정안은 3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5개 영역하의 유아발달 중 역시 건전한 심신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놀이지도 및 다양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한 하위 목표 선정에 치중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공포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생활을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로 구

분하고 표현생활 속에 신체발달, 음악과 미술교육을 포함한다.

특히 음악과 관련하여서 제5차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근접하므로 여러 가지 소리 만들기, 노래부르기 및 간단한 노래나 노랫말 만들기, 리듬악기 다루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여러가지 소리듣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듣기, 다양한 종류의 춤감상, 극놀이 감상, 전통예술에 친숙해지기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교육부, 1993-B).

다섯 차례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유아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꾸준한 수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한마디로 우리 나라 유치원 음악교육은 가창, 연주, 감상을 통한 창조적 표현활동 및 표현놀이로 그 맥을 이어왔는데 유아교육의 특성상 다른 교육영역과 함께 통합적으로 실행되어왔다. 가창과 연주 및 감상 중심의 유아음악교육 흐름은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도 일맥상통하며 나아가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음악교육과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교육부, 1993-A; Mark, 1989). 그러나 유아교사나 유아에게 실제로 필요한 목표 실천을 향한 구체적 접근 방법 및 표현방법의 제시는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있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음악활동의 전개 방법 및 자료선정, 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므로 이는 앞으로도 유아를 대상으로한 많은 과학적 음악연구 결과를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새로운 유치원교육과정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III.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1.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1970년대 이후 보고된 유아음악교육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음악활동은 다음의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음개념 형성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적 인지 능력(musical cognition) 향상을 위한 작업과 둘째, 본능적으로 혹은 훈련에 의하여 습득한 음개념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활동 즉 노래나 연주 그리고 신체표현하고 창작하는 등의 형태로 음에 대한 느낌을 직접표현(musical production)하는 작업과 셋째, 이해하고 표현하는 음악에 대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각자의 음악기호를 형성하는 작업(musical affect 또는 preference)으로 나눌 수 있다(Scott, 1993). 구체적으로 음악적 인지능력은 서로 다른 음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 구별할 줄 아는 음의 구별력과 (discrimination, 예: 「작은별」의 첫 두마디와 「생일축하」 첫 두마디의 음이 같은

가 다른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음을 듣고 그 음을 알아맞추는 음의 식별력(identification, 예: 「작은별」 첫 소절을 듣고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히기), 또 연주된 여러 음을 듣고 정해진 음개념에 의해 그룹화하는 음의 분류력(categorization, 예: 「작은별」을 피아노, 실로폰, 마라카스연주로 들은 후 두그룹으로 나누기), 그룹화한 음을 일정한 음개념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열할 줄 아는 음의 순서화 능력(ordering, 예: 「작은별」을 소고, 작은북, 큰북으로 리듬맞힌 후 큰소리 순으로 나열하기), 마지막으로 듣거나 불러본 음을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음의 기억력(memory or recalling, 예: 「작은별」을 배운 후 5시간 혹은 5일 후에 다시 혼자 불러보기)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음에 대하여 획득된 인지능력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곧바로 음악 표현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음개념의 표현은 달크로즈와 같이 신체표현을 통할 수도 있고, 오르프가 주장하듯 악기 합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코다이의 음악교육적 신념대로 노래부르기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외에도 그림을 통한 감상이나 간단한 제스처어로 혹은 말이나 글로 써 보는 것도 일종의 음악표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에게 일반적이고도 효과적인 표현법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음에 대한 인지력을 쌓거나 다양한 표현활동을 거치면서 유아는 자기가 경험하는 음악에 대하여 기호를 형성한다. 기호(affect 혹은 preference)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음에 대한 신체적 반응(physical response)이나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이란 뜻으로 음악교육 연구자들 간에 다양하고 혼돈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음악적 자극에 비하여 특별히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Miller, 1993). 음악적 기호를 현대적의미로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유아는 모든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나 성인들과 달리 음악자체 만으로는 기호형성이 어려운 발달시기도 있으므로 유아교사들은 음악 보조자료의 활용이나 특정한 음개념 지도에 단계적 접근 등들 고려해야 할 것이다(Shehan, 1987).

그러므로 바람직한 음악교육이란 음의 인지, 표현, 기호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이 골고루 배합이 되어 어린이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각자가 미리 경험했던 음의 세계에 대한 준비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정도와 방법으로 그러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이 제공되는 음악수업을 뜻한다. 그런데 여러가지 음개념에 따라 발달의 순서가 다르다. 예를들면 3세아는 기차소리가 작게 들리면 작은 크기의 기차가 오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5세아는 기차가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악교육방법에 따라 발달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본능적인 음악 인지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음악적 인지능력이 각 연령에서 어떻게 발달하며 음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순서 또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곡에 대한 빠르

기나 장르에 대한 기호가 어떤지 등은 직접 유아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적인 실험연구 결과에 의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연구는 실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약점(예:유아의 짧은 집중력이나 비가역성)으로 인하여 유아음악 연구는 그 범위와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2. 유아의 음악성 발달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아의 음악활동은 인지발달과정, 표현활동 과정, 기호형성작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연령별 각 발달사항과 바람직한 음악자료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뒷 페이지의 표1을 참조하시오)

3. 유아음악 연구

197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유아교육과와 음악교육과를 중심으로 200여편의 음악

〈표 1〉

연 령	본능적 반응	음악적 인지	표현	기호	바람직한 음악자료
0-2개월 2-6개월 6-12개월	청각의 발달 청각과 시각 소근육 발달	음색구별, 음의 섬여림, 소리변화식별	쿠잉 소리모양		주변사람의 목소리, 소리나는 모빌, 찬팅(쟁쟁, 도리도리, 아침바람), 딸랑이, 수도꼭지나 변기 물내리기
1-2세		음악적 소리와 비음악적 소리 구별 음의 고저인지 리듬변화 인지	노래에 비리듬적 발구르기		생활주변의 소리를 내는 다양한 물건 (전화, 남비, 수저등)
3-4세		음정보다 음흐름에 정확한 반응	대강 노래 부르기, 여러노래를 섞어 부름, 음정만 따로 연습시 높은 음역 사용	소리나는 물체를 확인할 때 더 좋아함	다양한 레파토리의 음악 (전래동요, nursery rhyme, 국악, 고전, 기타)
4-5세		음의 그룹화	제한된 범위에서 정확한 노래부르기, 노래하며 손뼉치기, 자작곡 노래		음역에 알맞는 많은 양의 노래
5세	대근육 발달	음정, 음흐름, 조변화 인지, 화음 인지(혼돈이 따름)	정확하게 노래, 연 주 및 변주, 높이뛰기, 크게뛰기	감상을 즐김	음역이 넓은 노래, 독립노 래, 2부합창, 악기지도 가능

교육연구가 보고되었는데 유아음악연구는 전체의 20%에도 못미친다(장현, 1988). 유아음악연구의 경우 초반에는 주로 노래중심의 교재분석(김성렬, 1970)에서, 1980년대 이후 유아음악환경 실태조사(이영숙, 1986),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음악교육관(민서현, 1984)등에 치중하여왔으므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교육적 분석, 유아의 음악지도 방법이나 기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아의 음개념형성과정 및 음악적 능력의 조기 발견법과 그 발달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가들이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연구분야로 남아있다. 이 방면의 연구 결과는 유아의 노래지도를 위하여 어떤 곡을 어떤기준에 의해 선택할 지 음조절은 어떻게 할 지, 유아의 실재음역(tessitura)과 교재의 음역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지, 전통음악을 포함한 다문화적 음악경험을 위하여 어떤 장르의 레퍼토리를 어떤 표현활동을 통하여 전개하여야 할 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들에게 음개념에 대한 소개를 어떤 순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하여 가능한 해답을 줄 것이며 그러한 제시는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유아음악교육 전문연구가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존의 연구결과만을 활용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위에서 언급된 세 기초영역(인지, 표현, 기호)에 관련되는 외국학자들의 연구결과 중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JRME)와 Psychomusicology, 그리고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1993)등에 발표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음악 연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유아음악교육의 미래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1. 음악적 인지에 관련된 연구

Scott(1977)은 교육심리학과 음악심리학을 전공한 현재 미국의 중진 음악교육가로서 유아의 음악적 인지발달 연구의 선봉자라고도 할 수 있다. 스코트는 3-5세아를 대상으로 그시기의 유아들이 음정변화나 음흐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지(Musical conceptualization)의 여부를 조사한 후 이미 만3세부터도 음정과 음흐름을 인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음정변화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음흐름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밝혀졌으며 형성된 음개념이 이들에 의해 자연스레 표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음개념형성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 적절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하여 아직 말을 잘 못하는 1세 미만의 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대강 짐작하는 것과 같이 그녀가 실시한 연구의 대상이던 3-5세의 유아들은 음개념은 형성하였지만 형성한 음개념의 표현은 미숙한 시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코트의 연구 결과는 음악적 표현능력에 비해 음개념형성 시기가 우선함을 증명하며 이는 곧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음개념 형성을 돕는 좀 더 조직적인 음악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음개념 형성에 기초한 여러가지 소리듣기나 여러가지 음악듣기는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음악활동이 될 수 있다.

Wester와 Schlentrich(1982)는 스코트의 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미 형성된 음개념을 어린이로부터 확인해내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기가 들은 음의 성질을 첫째 말로써, 둘째 악기연주로써, 셋째 손을 사용한 제스처로써 표현하게 하였는데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악기연주가 가장 효과적인 표현법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스코트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유아교사들이 지도하기를 희망하는 음개념을 가능한 연주로써 표현하는 방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Trehub과 그의 동료(1985)들은 5세를 전후한 캐나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과 같이 음정변화(interval change)나 음흐름(contour), 조의 변화(key change)에 대한 개념의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작은별」과 「생일축하」 노래를 음정변화, 음흐름, 조변화의 각각 다른 세가지 형태로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노래를 i)원형 그대로, ii)음흐름은 유지한 채 일부 음정만 바꾸어서, iii)음흐름과 음정을 모두 바꾼 후 이것을 원래 조(original key)와 관련된 가까운 조(related close key), 또 비관련된 먼 조의 (unrelated far key) 세 종류의 조에서 모두 9가지의 다른 가락을 각각 연주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들은 여러가지 가락들이(2곡x9가지=18가지로 변형된 가락) 「작은별」인지 아닌지 「생일축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종합적으로 가락에 대한 유아들의 인지능력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연구결과는 5세 유아들이 익숙한 노래의 가락변화를 음정변화, 음흐름, 조로 구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만 음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수용여부 정도가 성인과 비교하여 덜 융통적이라는 면이 추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인은 「작은별」의 음정바꿈 연주를 원곡의 변주곡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것을 「작은별」의 변주로 생각하지 않는 유아의 숫자가 많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아들이 음흐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들의 음악경험이 아직 다양하지 못하므로 소위 변주를 변주로 받아들이는 음악적 융통성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

Michel(1973)은 태아의 울음소리와 가창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울음소리가 클 수록 앞으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우리 나라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엉덩이를 때려주고 그때 내는 아기의 울음크기를 삼신할미가 정해주었다며 아기의 미래의 가창력과 연결시키며 이야기하던 풍습이 외국의 음악학자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사실이 한편 재미있다. 그러나 마이클의 연구주제는 더이상 유아 음악교육연구가의 매력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다.

Schleuter와 Schleuter(1985)는 5세에서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리듬표현 방법에 대한 연령별,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리듬 찬팅과 손뼉치기를 주된 리듬 표현법이라 간주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순서로 사용되는 지를 조사했는데 어릴 수록 먼저 리듬 찬팅(예: "덤덤 덩덕 둡")하고 말로 하는 리듬 표현)에서부터 리듬 찬팅 + 손뼉치기의 순서로 표현하고 연령이 높은 8세아는 손뼉치기만 이용한 리듬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리듬지도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으나 비교적 손뼉치기에 익숙한 우리 나라 유아들의 놀이활동이나 리듬이 우선하는 우리 음악의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연구 대상 유아의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특히 여아들이 남아에 비하여 리듬 찬팅, 손뼉치기 모두 활발한 모습을 보인 점은 우리 나라 유아들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Flowers와 Dunne-Sousa(1990)은 3세-5세아들에게 지정곡, 자유곡 그리고 따라부르기 노래의 세 곡을 주고 각자 종지를 하도록 하여 가창의 정확성과 사용된 음역을 살펴 보았는데 3, 4, 5세 모든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곡에서 가장 넓은 음역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정확한 음정의 표현 보다는 음흐름에 의존하여 노래부르는 것이 밝혀졌다.

3. 음악적 기호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기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LeBlanc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유아를 대상으로한 음악적 기호연구는 비로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하였다. 주로 국민학교 고학년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르블랑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느린곡보다는 빠른곡을, 성악곡 보다는 기악곡을, 고전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81). 또한 중학생의 경우 음악기호 결정에 있어서도 음악교사나 부모보다 또래집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이들에게 빠르게 악기로만 연주되는 대중음악에서 점차 느리게 불리워지는 고전음악순으로 수업을 전개시키는 음악교수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왔는데 Scott(1993)을 위시한 유아음악교육가들은 유아기는 음악기호 형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그동안 말해왔다. 다시말하면 일생을 통하여 유아기 만큼 모든 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아는 어떤 음악에도 뚜렷하게 '좋다' 혹은 '안 좋다'와 같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의도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별다른 불평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많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친숙해진 음악을

유아가 특별히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유아기의 이런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하게 선별된 음악을 지속적으로 유아들에게 들려주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LeBlanc 이후 McMahon(1987)과 Peery & Peery(1986)등에 의한 유아의 음악기호연구는 기존의 주장을 뒤엎고 유아기에도 뚜렷한 음악기호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맥마혼의 연구에서는 유아도 국민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빠르기의 음악을 좋아하고 고전음악이나 대중음악등의 음악장르에 대한 기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피어리와 피어리는 유아에게 고전음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종전의 주장대로 다양한 음악의 제공은 오히려 교사가 의도하는 특별한 음악장르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유아기의 음악기호 형성여부가 구체화 된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하며 조기음악교육 연령을 현재보다 더 앞당길 가능성마저도 품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주장을 유도하는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주목이 귀추된다.

IV. 요약 및 제언

유아의 생활 속에서 음악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나라 유치원 교육사를 보더라도 유아교육은 곧 음악수업(음악교육이 아니라)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음악활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활동은 음악적 인지능력 향상이나 기호형성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다는 유아교사들로 부터 노래를 배우고 울동을 하는 표현놀이 중심활동으로 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여러 교육영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음악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은 유아교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음악교육은 음개념 형성을 돕는다거나 창의적이고 음악적인 표현을 통하여 미적감각 훈련에 도달하기보다는 다른 활동과의 전이목적 아니면 단순화된 형태의 음악표현활동에 기초한 노래부르기나 울동, 손유희로 생각하고 이를 곧 음악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을 최근 20년간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주제와 결과에 의존하여 검토하여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 유아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국내의 유아음악연구는 동요분석과 유아의 음악환경조사, 유아를 둔 부모들의

음악교육관등에 치중한 반면 외국에서 실시된 근간의 유아음악연구는 주로 유아의 음악적 인지 발달에 관련하여, 표현활동에 관련하여, 그리고 기호에 관련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미 3세아도 음정과 음흐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는 점과 그러한 개념은 연주를 통하여 보다 정확히 확인되었으며 다른 연령층의 대상과는 달리 유아들은 모든 종류의 음악을 수용하는 광의적 음악기호를 갖춘다는 유아기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특히 음악적 인지발달이나 음악기호 형성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우리 나라 유아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아음악교육은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교육 역시 음악을 독립된 교육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교재분석이나 실태조사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음개념 발달 속도나 순서, 다른 문화와의 접근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음악기호의 양상, 효과적인 음악표현방법과 지도방법 등의 음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유아교사를 위한 음악 재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을 보다 전문화 시켜줌으로써 음악교육의 기본목표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향한 유아음악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1993-A)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Vol3. 서울, 교육부.
- _____ (1993-B) 치원 교육과정 해설. Vol3. 서울, 교육부.
- 김성렬 (1970) 유치원 노래교재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서현 (1984)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금 (1987) 한국근대 유치원교육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영숙 (1986) 가정의 아동음악 환경에 대한 부모태도 및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화,김영희(역) (1990)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서울, 교문사.
- 장 현 (1988) 음악교육 문헌관계 한국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총괄 및 분석.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용희 (1988) 한국동요음악사. 서울, 새광음악출판사.
- Flowers, P.J., and Dunne-Sousa, D. (1990) Pitch patterns accuracy, tonality, and vocal range in preschool children's singing.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8(2), 102-114.
- LeBlanc, A. (1981). Effects of styles, tempo, and performing medium on children's musical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57-66.
- Mark, M. (1989) A New look at historical periods in American Music Education. *Council of Review of Music Education*, 99, 1-6.
- McMahon, O. (1987). An exploration off aesthetic awareness in preschool age children.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1, 97-102.
- Michel, P. (1973) The optimum development of musical ability in the first years of life. *Psychology of Music*, 1, 14-20.
- Miller, R.F. (1993) Affective response. In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Learning and Teaching*(R. Colwell Ed.,). NY, Schirmer Books, 414-424.
- Peery, J.C., and Peery, I.W. (1986). Effects of exposure to classical music on the musical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3(1), 24-33.
- Schleuter, S.L., and Schleuter, L.J. (1985) The relationships of grade level and sex differences to certain rhythmic responses of primary grade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3(1), 23-30.
- Scott, C.R. (1977) Pitch concept formation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Scott-Kassner, C. (1993) Research on Music in Early Childhood. In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R. Colwell Ed.,) NY, Schirmer Books. 633-650.
- Shehan, P.K. (1987) Effects of rote versus note presentations on rhythm learning and reten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17-126.
- Trehub, S.E., Morrongiello, B.A., and Thorpe, L.A. (1985). Children's perception of familiar melodies: The role of intervals, contour, and key. *Psychomusicology*, 6, 39-48.
- Webster, P.R., and Schlenrich, K. (1982). Discriminatyion of pitch direction by preschool children with verbal and nonverbal task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3), 151-162.